

Victor Hugo 1802-1885

세기의 전설, 휴머니스트 사상가



1. 나는 샹토브리앙이 되겠다!

2. 낭만주의 예술의 선봉

3. 서정시인

4. 위대한 소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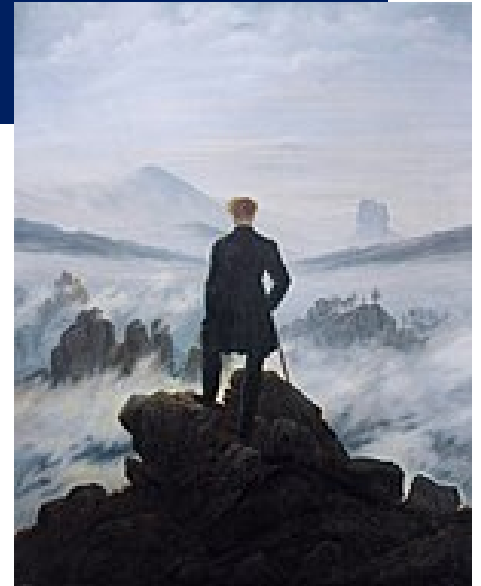
5. 혁명과 망명

6. 휴머니스트-사상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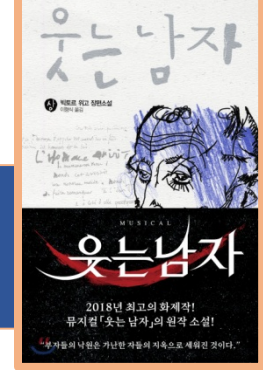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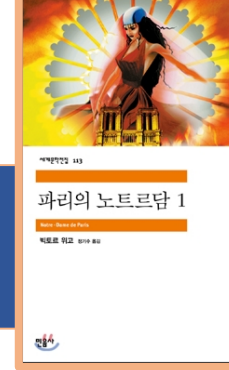
1. 나는 샤토브리앙이 되겠다!

*“샤토브리앙이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14세 때 (1816년 7월 10일자 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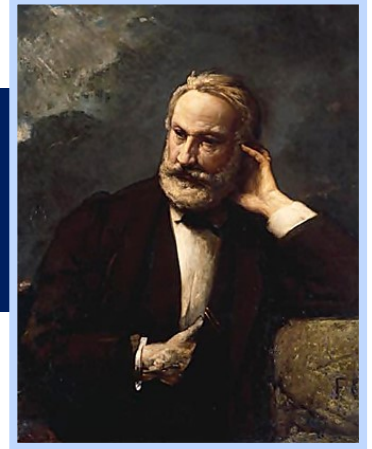


1-1. 주요 작품들



- 1819 (17세) 첫 시집 《오드와 다양한 시들 *Odes et poésies diverses*》.
 - 1823 (21세) 소설 《아이슬란드의 한 *Han d'Islande*》.
 - 문예지 《라 뮈즈 프랑세즈》.
 - 1826 (24세) 시집 《오드와 발라드 *Odes et ballades*》.
 - 1827 (25세) 희곡 《크롬웰 *Cromwell*》, 낭만주의 선언서 《크롬웰 서문》.
 - 1829 (27세) 《동방 *Les Orientales*》 시집.
 - 1830 (28세) 희곡 《에르나니》.
 - 1831 (29세) 《파리의 노트르담 *Notre-Dame de Paris*》.
 - 1849 (47세) 입법의회 의원 당선.
 - 1851 (49세) 나폴레옹 3세 쿠데타 이후 추방, 국외 망명.
 - 1853 (51세) 《징벌 *Les Châtiments*》 시집.
 - 1856 (54세) 《정관 *Les Contemplations*》 시집.
 - 1862 (60세) 소설 《레 미제라블 *Les Misérables*》.
 - 1869 (67세) 소설 《웃는 남자 *L'Homme qui rit*》
-
- 1885 5월 22일(83세) 사망. 국장으로 **팡테옹**에 안장.

2. 낭만주의 예술의 선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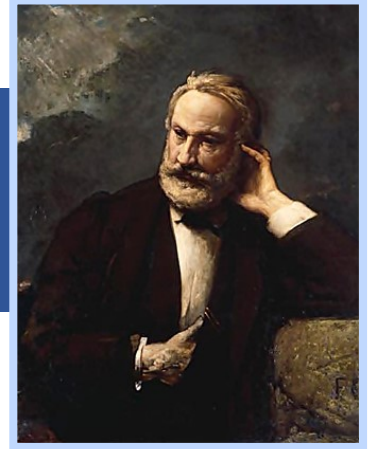
◆ 희곡 <크롬웰>은 고전주의 연극의 '삼일치 법칙'(행위, 시간, 장소의 통일)과 5막 구성, 알렉상드랭(12음절 시구)을 거부.

◆ <크롬웰>에는 웃음과 눈물, 추함과 아름다움이 뒤섞임. 이 희곡은 너무 길고, 배우 수도 많아 공연 자체가 불가능해 보인다. 그럼에도 연극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새로운 작품 **그로테스크!**

“현대는 기독교와 함께 시작하는 드라마의 시대로서 인간의 삶을 노래한다. (...) 드라마의 특징은 사실적이다. 사실적인 것은 두 가지 유형의 자연스러운 결합으로부터 나온다. 즉 **고상한 것과 그로테스크한 것이다.** 이것들은 삶과 창조에서 혼재되어 있듯 드라마에서도 겹쳐진다. 진정한 시, 완벽한 시는 대립되는 것들의 조화이기 때문이다.” (<크롬웰의 서문>에서)

◆ <크롬웰의 서문>은 **낭만주의 연극 선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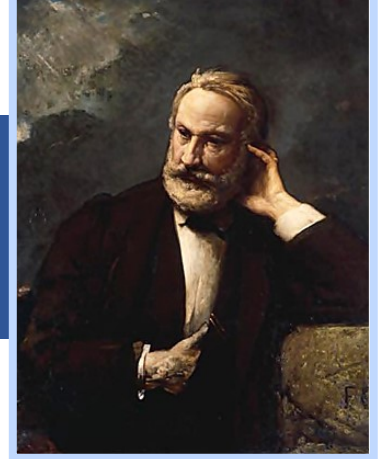
2-1. 낭만주의 연극 <에르나니> (1830)



“제 작품을 여러분의 손에 맡깁니다. <에르나니>에서 시작될 투쟁은 이념의 투쟁이요, 진보의 투쟁입니다. 우리는 저 톱니 모양을 하고 빗장을 굳게 잠근 낡은 문학과 맞서 싸울 것입니다. 저 케케묵은 벽 위에 세워진 낡은 장식 깃발을 움켜잡시다. 그 요란한 장식을 아래로 던져 버립시다. 이 자리는 낡은 세계와 새로운 세계가 투쟁하는 자리이며, 우리 모두는 새로운 세계에 속하는 것입니다.” (아델 위고, <생의 동반자가 얘기하는 빅토르 위고>에서, 1862)

- <에르나니>의 대성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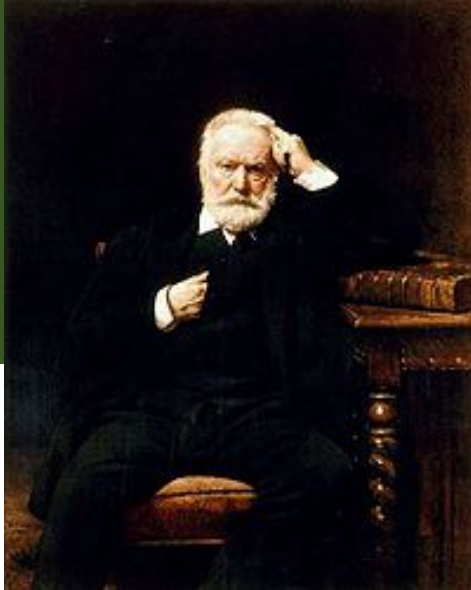
2-2. 세나클의 중심



낭만주의 그룹 리더로서 위고는
외젠 들라크루아, 오노레 드 발자크,
뒤마, 프로스페 메리메, 테오필 고티에, 제라르 드 네르발,
알프레드 드 비니, 생트 뵈브 등과 회합.

위고의 연인, 줄리에트 드루에, 그리고 아내와 생트 뵈브의 연애사건!

3. 서정 시인



<가을 나뭇잎*Les Feuilles d'Automne*> (1831),

<황혼의 노래> (1837), <내면의 목소리>, <빛과 그림자> 등...서정성이 짙은 낭만주의 시.

*시인은 신앙 없는 시대에
보다 나은 시대를 예비하러 온다.
그는 이상향의 인간이다.
발은 이곳에, 두 눈은 다른 곳에
모든 머리 위에, 모든 시기에
예언자를 닮은 것은 바로 그이다...*

<빛과 그림자> (이규식 역)

3-1. 시집들



- <징벌>시집(1853) “나의 리라에 청동의 현을 덧붙일 것.”

- <정관>시집(1856)

오, 주여! 내게 밤의 문을 열어주소서,

내가 갈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망명이여!

나는 그대를 좋아한다. 고통이여, 그대가 좋구나!

슬픔이여, 나의 왕관이 되어다오.

- <세기의 전설>(1859)

- 시와 시인의 역할, 인간의 운명, 종교, 자연, 사랑, 죽음 등 보편적 주제들...감수성과 사상을 드러내는 낭만주의 시.

- 삶과 죽음 사이에서 시인이 보여주는 희화(戲畵), 이원론적 관점, 신에 대한 인식, 정신주의 등 시대의 고유한 지적 전통을 반영. 영원, 신성의 문제에 대한 시인의 내면적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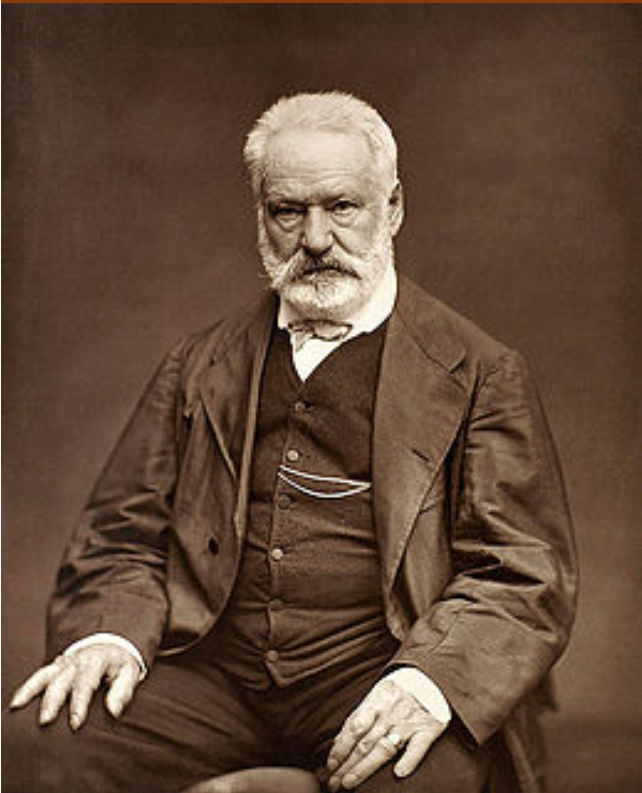
4. 위대한 소설가

위고 작품의 특이점 그로테스크 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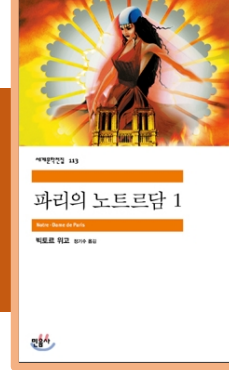
일시적인 것, 동물, 육체, 추한 것, 기형적인 것,
악, 짐승, 불완전한 것, 조롱거리, 끔찍한 것.

광대, 얼굴을 찡그리는 것, 기묘한 것, 사탄, 음
흉한 것, 기어가는 것 등.

그로테스크는 이미지, 개념, 직감 등 다양하고
모호함 등으로 독자에게 부정적인 느낌을 줌.



4-1. 파리의 노트르담



- <파리의 노트르담>는 낭만주의 시대 역사소설의 걸작.
- 15세기 말 파리의 모습 재현. '괴물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작품.
- 프롤로 부주교는 아름다운 집시여인 에스메랄다를 욕망한다. 욕정에 불타는 부주교는 성당의 종지기 카지모도를 시켜 그녀를 납치한다. 에스메랄다는 잘생긴 용모의 근위대장 페뷔스에게 연정을 품는다. 프롤로는 질투심에 에스메랄다가 사랑하는 페뷔스를 칼로 찌르고, 그녀를 범인으로 몰아 체포한다. 그녀는 교수형의 언도를 받는다. 그때 에스메랄다를 연모하던 카지모도가 그녀를 보호하려고 성당으로 데리고 가지만, 그녀는 체포되어 교수형에 처해진다. 이것을 본 카지모도는 프롤로를 죽이고, 그 역시 에스메랄다의 시체 옆에서 죽는다.
- 이성과 금욕을 내세우는 성직자가 온갖 악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음. 즉 교회와 지배계층의 위선과 추악함을 풍자.
- 카지모도는 귀머거리에 꼽추, 그로테스크의 전형이다. 그러나 그는 외형의 추악함에 비해 내면의 순수성, 숭고함을 지녔다. 오히려 진정한 괴물은 프롤로 부주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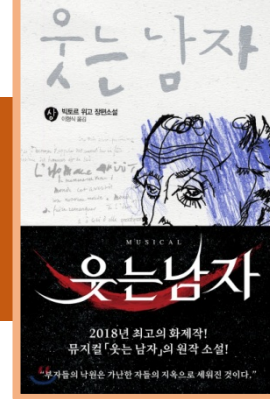


4-2. 레미제라블

낭만주의 사회소설의 대표적 걸작

- 19세기 초 프랑스 사회 문제 고발, 삶의 현장과 풍습 등 저자의 세계관 제시.
- 논리와 조직만으로 인간의 행복을 가져올 수 없고, 인정과 자비, 연민의 필요성.
- 혁명가 마리위스를 설정하여 작가자신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적 서정소설, 민중의 영광을 염원하는 인도주의적 시. 저열하고 비속한 당시 사회풍속 가차없이 폭로한 사실주의 소설.
- 앙드레 모루아... “서사시와 소설, 그리고 에세이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작품”
- 랑송... “온갖 탈선과 삽화와 명상 등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소설은 하나의 세계요, 하나의 혼돈이다.”

4-3. 웃는 남자



-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 비극적 운명의 주인공을 통해 사회정의, 도덕, 법, 인간의 존엄성 등 보편적 가치를 다룸.

“그원플랜은 웃으며 사람들을 웃겼다.

하지만 그는 웃지 않았다.

그의 얼굴이 웃었지 그의 생각은 웃지 않았다.”

5. 혁명과 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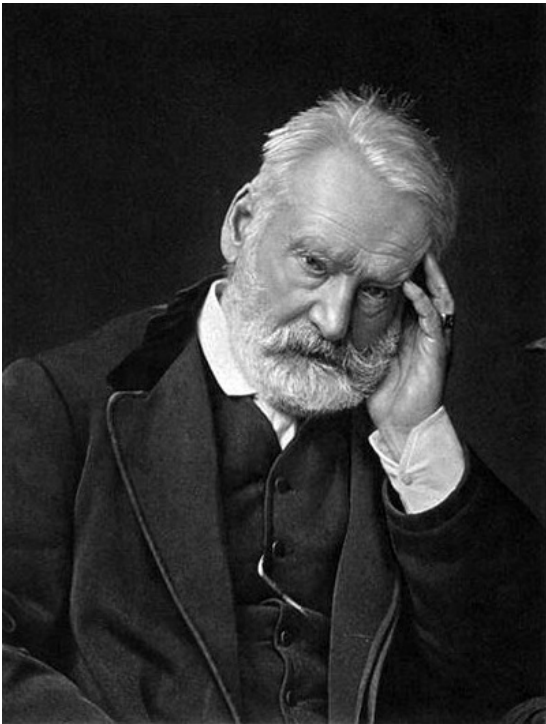


- 1848년 2월 혁명 발발, 위고 국회의원 당선.

대통령 선거에서 루이 나폴레옹을 지지했지만, 곧이어 반동정치가 시작되자 정부 비판.

- 1851년 12월 루이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켜 제정을 선언하자, 위고는 반정부 인사로 벨기에로 피신. 망명 중 프랑스 정부를 비판하는 글 발표, 벨기에에서 대서양 영국령 저지 섬으로 추방.
- 고독한 망명생활 중 <정관>시집(1856), <세기의 전설>(1859), <레미제라블>(1862), <바다의 노동자>(1866), <웃는 남자>(1869) 등을 집필.

6. 작가-정치인-인간 빅토르 위고



- 작가 아닌 인간으로서 빅토르 위고는?
- 진정한 **휴머니스트**인 동시에 에고이스트로 이중적 성격을 지녔다. 특히 정치적 변신은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젊은 시절 왕당파였지만, 여러 차례 변화 끝에 결국 열혈 공화파가 되었다.